

2022 하반기 Vol.84

Into the village



Contents

- | | |
|---|---|
| <p>03 이사장 인사말
빈곤 포르노 이제 그만!</p> <p>04 현장이야기
태국 사업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자!</p> <p>08 GCS 사업소개
라오스 전략작물 생산예측 시범사업</p> <p>12 GCS 이야기 1
베트남 외교부 NGO 위원회 감사패 수상</p> | <p>14 GCS 이야기 2
몽골 다큐멘터리 '자르갈란트의 노래'</p> <p>16 GCS NEWS</p> <p>18 GCS 캠페인
르완다 아동 급식 지원_건강한 한 끼의 힘</p> <p>20 후원신청서
사람을 생각하다, 변화를 바라보다.</p> |
|---|---|

빈곤 포르노 이제 그만!

최근 정치권에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빈곤 포르노란, 모금이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하는 용어지요. 그런데 정치적 목적으로 공방이 오가다 보니, 일부 방송에서 단체들이 모금을 위해 사용하는 '빈곤 포르노'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제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빈곤 포르노'라 부르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후진적인 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10년 전, 베트남 북쪽 라오카이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사는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관광객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와서 주의할 점을 영어로 적어놓은 거였지요. 주의할 점 중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 사진을 찍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고, 그런 사진들을 여기저기 올리는 걸 예방하려는 의도였겠지요. 관광 수입을 위해 마을을 개방했지만, 마을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도 구제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단체들은 구호나 개발지원을 할 때는 물론, 홍보나 모금 활동을 할 때도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서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더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스 어스(Miss Earth)'가 된 최미나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공감 능력이 향상돼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혜경

현장이야기_태국 사업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

태국-미얀마 국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봉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얀마 카렌주의 탈라마을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점차 규제가 완화되어 지난 8월 14일, 2년 6개월여 만에 탈라마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재개되었습니다. 태국 사업소 허춘중 소장님이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시행하였고, 라첸 부소장님이 통역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총 5가지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되었습니다.



주민교육을 통한 계몽과 인식개선의 중요성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 속 반복적인 생활을 합니다.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을 위해 혹은 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모임을 하는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가정을 잘 보듬을 방법과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방법, 공동체 성장 방법에 대해 각자가 능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공동체 정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마을의 성장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필요성에서 나아가 부지런하게 살 것 역시 강조했습니다. 발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할 일을 찾아 좀 더 생산적인 생활을 하자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더불어 마을 환경과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현명한 소비 방법

돈의 일부를 모아 소 한 마리를 산다면 2, 3년 후에 한 마리였던 소가 2~3마리로 늘어날 것이고, 가정의 재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재산은 미래에 아이들의 교육비 등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마을 참여 중요성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청년들만의 시각으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은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공감과 협조 역시 필요한데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청년들의 마을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삶의 중요성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점으로 '교육'을 꼽았는데요. 탈러마을처럼 다양한 어려움이 있던 한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 효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소통하는 방법과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탈러마을 주민교육. 교육 내용을 토대로 청년의 패기와 어른들의 지혜가 더해지면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건강한 마을의 모습이 될 때까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탈러마을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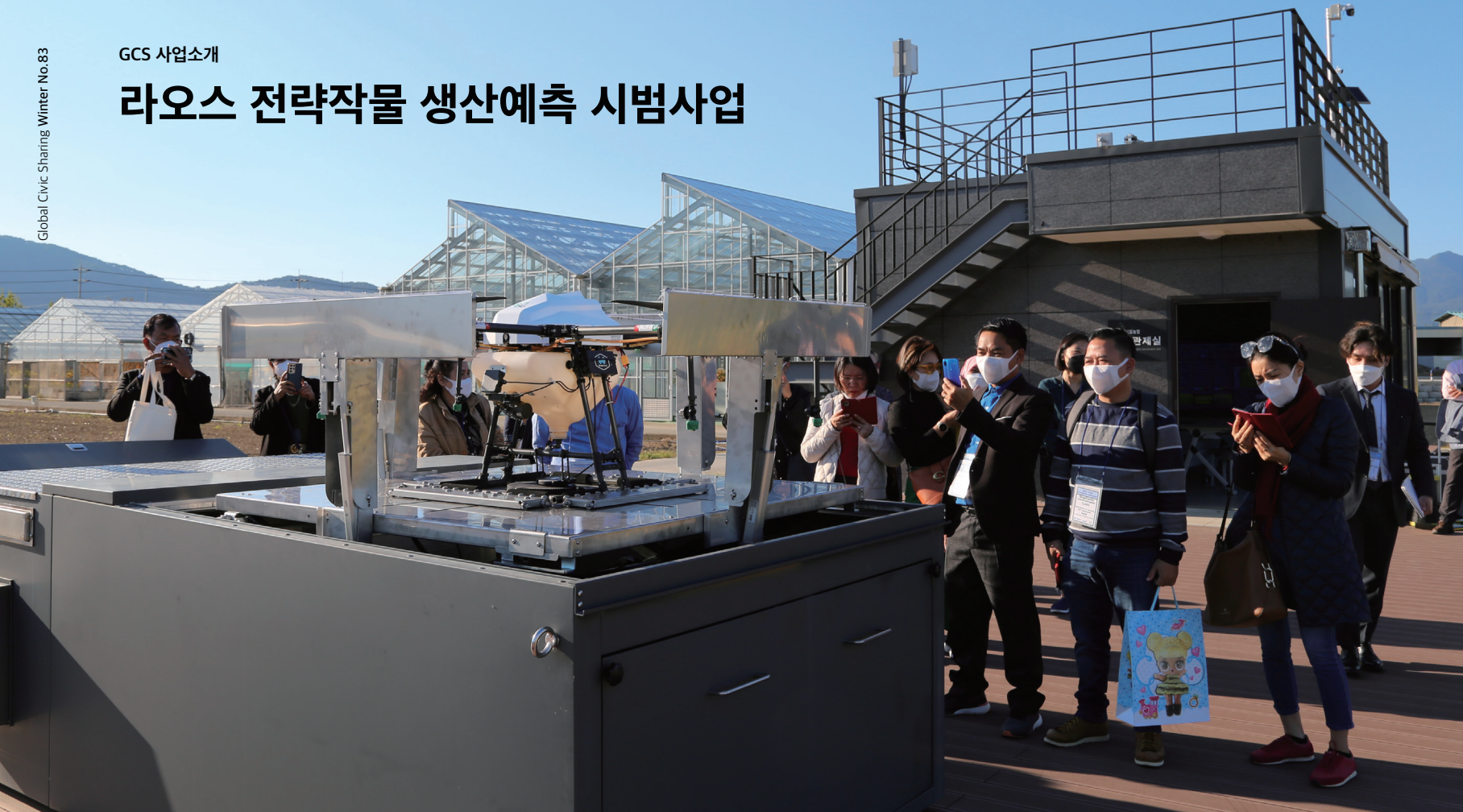
“ 마을은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고,
마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마을의 아이들도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

- 태국 사업소 허춘중 소장 -



GCS 사업소개

라오스 전략작물 생산예측 시범사업



ICT로 농업의 혁신을 꿈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ICT가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회관계망과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한, ICT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분야에 적용된 다양한 ICT는 식량안보와 미래의 농업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은 라오스 전략작물 생산예측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농업 의존도가 높은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ASEAN 실시간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초청·현지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AFSIS(ASEAN 식량안보 정보시스템) 사무국과 EPIS(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함께 주최하고 지구촌나눔운동이 진행한 이번 연수, 국내에서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구촌 공무원과 함께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초청 연수 / 2022.10.09.~14.

NAIS(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 성과 확산 및 수확량 예측 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ASEAN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해당국의 기술 수준 향상과 함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ASEAN 6개국(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농업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기술과 활용 사례를 소개했고, 국내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남지역의 농업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밀양남부작물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예방법과 수확물 예측법을 소개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의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ICT



종합정보시스템(병-해충, 기상 예측 서비스) 견학을 통한 스마트팜 활용 농가 방문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수하였습니다.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각국의 참가자가 자국의 AFSIS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최근 주요 실적에 대해 발표했으며,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해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국 모두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앞으로 ASEAN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연수 / 2022.11.23.~25.

라오스 농림부의 식량안보, 농식품 담당 공무원 50명을 선발하여 식량안보 정보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료 분석 능력 배양 등 원격탐사 활용 수확량 예측 기초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라오스 현지에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라오스 공무원들의 실무 활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간 정보 분야가 농업에 적용되는 방법과 그를 활용한 수확량 예측 방법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ICT 활용을 위한 용어 강의와 함께 3D, 포인트 클라우드 등 컴퓨터 프로그램 실습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ICT를 활용한 수확량 예측에 가장 기본이 되는 드론은 실습을 통해 활용방식을 익혔습니다. 라오스 현지에 사전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진행된 실습에서는 단순히 드론 조종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하여 원하는 사진을 촬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여 농산물 수확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함께 들 수 있었습니다.

GCS 이야기 1

베트남 외교부 NGO 위원회 감사패 수상

지난 11월 9일, 베트남 외교부 NGO 위원회가 직접 방한하여 한국 NGO 및 협력기관 정보공유 간담회와 기여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베트남 빈농의 자립에 기여한 공로로 베트남 외교부 NGO 위원회로부터 공로패와 평화 우호 감사 메달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는데요. 그 기쁜 날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상식 및 간담회는 서울 굿네이버스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여공로상 시상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 NGO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은 2045년까지 높은 국민소득과 함께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보건, 장애인 등의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회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불발탄 지뢰 문제로 지속적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고엽제 문제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한-베 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베트남의 장애인 재활과 소득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암소은행 사업을 실행하여 많은 저소득 농가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암소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처럼 소를 살 수 있는 종자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구매한 소를 사육하여 가축 두 수를 늘리고 나면 지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상환된 금액은 또 다른 농가의 종자돈으로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150여 개 마을에서 4년여 농가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앞으로도 베트남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삼아, 더 많은 지구촌 이웃이 지구촌나눔운동의 사업을 통해 자신의 겪고 있는 빈곤, 사회참여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GCS 이야기 2

몽골 다큐멘터리 '자르갈란트의 노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60km 떨어진 자르갈란트.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을에는 낙농업을 중심으로 정착한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과 독립영화 제작 크루 페르소나 위 아, 그리고 시즌 앤 위크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자르갈란트의 노래'는 낙농업을 기반으로 우유 가공 사업에 도전하여 한단계 도약을 꿈꾸는 자르갈란트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한 마을주민과 함께 자르갈란트 지역브랜드 확립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지구촌나눔운동 몽골 사업과 몽골 사업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르갈란트의 노래'는 오는 2023년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광화문 국제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독립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본 작품을 통해 몽골 자르갈란트 목축 농가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과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 및 내용이 여러분께 쉽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다큐멘터리
[자르갈란트의 노래]
티저 보러가기

GCS News

2022.08.29
지구촌나눔운동 X 페르소나 위 아 업무협약 체결



지구촌나눔운동은 페르소나 위 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페르소나 위 아는 독립영화 전문 제작사이다. 지구촌나눔운동과 페르소나 위 아는 몽골 사업 다큐멘터리 '자르갈란트의 노래' 제작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개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2.08.29
세계테마기행 몽골 조현주 사무총장편 방영



지구촌나눔운동 조현주 사무총장이 EBS 세계테마기행 몽골편 진행자로 출연했다. 조현주 사무총장이 소개한 '여름엔 몽골이지' 편은 지구촌나눔운동이 20년째 목축 농가 발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의 농촌 마을 '자르갈란트' 지역 소개와 더불어 몽골의 광활한 자연 그리고 다양한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보여준다. 방송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테마기행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넷플릭스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2.09.24
ECO WALK 청계산 걷기 챌린지 개최



지구촌나눔운동은 세계차 없는 날을 기념해 'ECO WALK 청계산 걷기 챌린지'를 개최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지소연·송재희 홍보대사와 후원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의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더불어 팀버랜드, 베루툼, 플래시커피 등이 후원했다. 행사 후원금 및 참가비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 사막화를 막기 위해 울란바토르시 인근 자르갈란트 마을에서 진행되는 나무 심기 캠페인에 사용된다.

2022.09.28.~10.07
동티모르 경기도 ODA 역량강화 사업 현지조사지원 사업 참여



지구촌나눔운동은 동티모르 내 미취학 아동 교육 관련 실태 및 주민 수요조사를 위해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마을 주민, 교육부 등 정부관계자, 유관 NGO 담당자 등 총 154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로스팔로스시 정부 관계자는 "아동 교육은 나라의 미래 경쟁력이며, 로스팔로스 지역과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온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과 기대를 밝혔다. 지구촌나눔운동은 현지 사업소를 중심으로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을 위한 모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2.11.08
지구촌나눔운동 법률자문위원 위촉



지구촌나눔운동은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 향상을 위해 법률, 세무, 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지구촌나눔운동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임무영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김효성 변호사, 김선동 세무사, 남경민 노무사 등 5명이다. 지구촌나눔운동 김혜경 이사장은 "사업·회계·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제개발협력력을 모범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12.10
나눔 토크 콘서트 WE;CONNECTED 개최



지구촌나눔운동은 지소연·송재희 홍보대사와 함께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르완다 꿈도서관 사업에 참여 중인 아동의 급식비를 모금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 핑크력키박스 로 상품도 뽑고 즐거운 후원도 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되어 온라인 참가자와도 함께해 더욱 특별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르완다 꿈도서관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의 급식비를 후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GCS 캠페인 르완다 아동 급식 지원

건강한 한 끼의 힘



지구촌나눔운동은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르완다 나루바카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증진과 학습 공백 해소를 위한 꿈도서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한 끼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러나 르완다 나루바카 지역은 르완다에서도 빈곤 지역으로 꼽히는 곳으로, 꿈도서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도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원활한 학교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모든 아이가 건강한 꿈을 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2만 원이면 아이들이 1년간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르완다는 총 3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20,000원은 세 학기의 급식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르완다 꿈도서관 아이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세요.

단체 후원계좌 / 예금주: 지구촌나눔운동
- 국민은행 009-01-1330-421
- 우리은행 1005-003-192863

* 이름 + 캠페인명으로 입금 예) 홍길동급식비지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입금 후 070-7006-6762 / pr@gcs.or.kr로 주민번호(개인), 사업자등록증(기업) 송부 부탁드립니다.



르완다 꿈도서관
급식비 캠페인 영상



르완다 꿈도서관
참여 아동 Fabiora 이야기

“사람을 생각하다 변화를 바라보다”



지구촌나눔운동
Global Civic Sharing

010-8719-7044

후원 신청자 정보

회원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		
소식지 수령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우편

*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경우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작성하신
후원신청서는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개발 NGO로서 지구촌
가난한 이웃의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 8개 국가,
9개 사업소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예금주 (기업명)	(남/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와 신청자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	

(6일, 25일 중 택일 가능)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출금 이체를 신청합니다.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되며 회원등록 및 소식제공, 후원사업 안내,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페이스북 gcskorea
- 인스타그램 gcs_korea
- 블로그 blog.naver.com/gcsblog
-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gcs.do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01-1330-421
(예금주 | 지구촌나눔운동)

발행정보 통권 84호 | 발행인 김혜경
발행일 2022.12.30. | 발행처 지구촌나눔운동
기획·제작 지구촌나눔운동 모금홍보팀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84 가든타워 901호
전화 02)747-7044 | 팩스 02)747-7046
홈페이지 www.gcs.or.kr